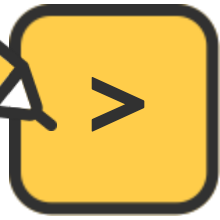


화성시환경재단
Hwaseong Eco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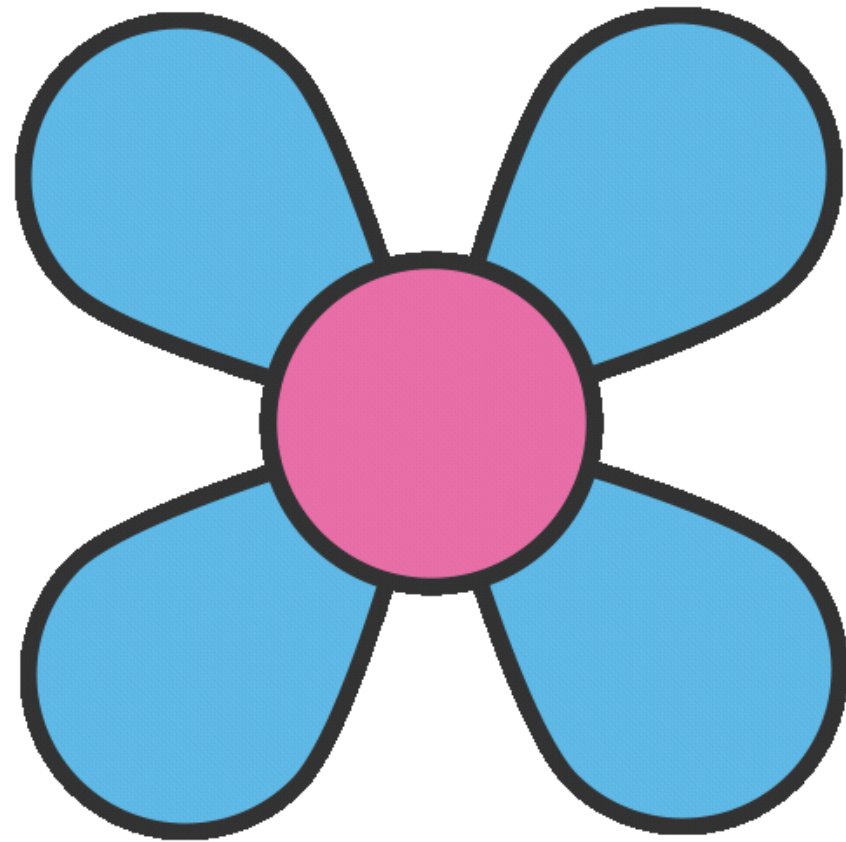
기후변화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의 필요성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전문강사 황 정미



강사소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전문강사
양성평등전문강사 황 정미



나눌 내용

1 성인지 감수성의 필요성

2 우리의 인식을 점검

3 기후변화와 주는 영향

4 우리의 실천과제

성인지 감수성의 필요성

01

성인지 감수성

어떤 의미

02

왜 필요한가

나의 인식점검



>

어떻게 보이세요?



<출처 :허정도와 함께 하는 도시이야기 티스토리 - 이태리 작가 주세페 아르침볼도 >



코끼리를 찾아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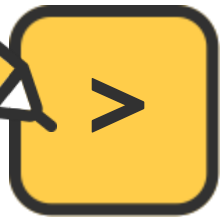
누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까요?





이렇게 바뀐다면





편리하시죠?





이렇게 바뀐다면..



사회적 약자 barrier-free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음 대안을 찾아내는 능력

성

인

지

감

수

성

강사의 성인지 감수성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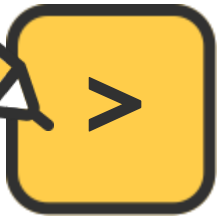
01

나의 생각을 점검

02

왜 필요한가

서로 다름과 존중이 필요



내가 느꼈던 **차별**은 무엇이 있을까요?
환경 느꼈던 **차별**은 무엇이 있을까요?

채팅창에 써 주세요

하나의 글을 차별을 평등한 문장으로
바꿔주세요

종이 비행기로 해서 날려 ~~



성별 고정관념적인 말들은 무엇일까요?

* 남학생이 들었던 말 *

* 여학생이 들었던 말*

-



수업 때 강사로서 주의해야 할 말들

* 남학생들이 들었던 말 들

- 남자는 울면 안돼 !!
- 남자가 그렇게 키가 작아서 어떡하니
- 남자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
- 남자는 원래 잘 표현을 못해
- 무거운 짐은 남자가 드는 거야
- 남자가 뭐 그런 일도 맘 상해 하고 그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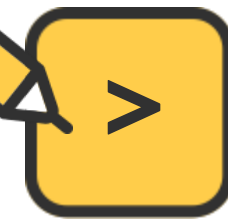
* 여학생에게 하는 말들*

- 여자가 무슨 축구를 하니
- 여자는 똥똥하면 안돼
- 여자가 당연히 요리를 잘 해 야지
- 여자가 왜 그렇게 애교가 없니 ?
- 여자 애가 얌전 해야지



이러한 상황 괜찮나요?





O,X 퀴즈 : 우리의 인식을 점검해 볼까요?





평등한 단어로 바꿔볼까요?

사용 되고 있는 언어	바르게 고친 언어
유모차	<input type="text"/>
범어리장갑	<input type="text"/>
김여사	<input type="text"/>
녹색어머니회	<input type="text"/>

기후 변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01

기후가 변한 이유

02

기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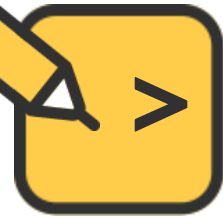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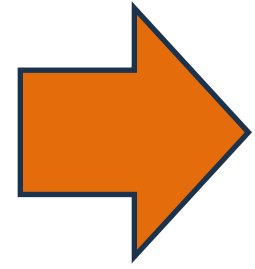
기후위기는 왜 생긴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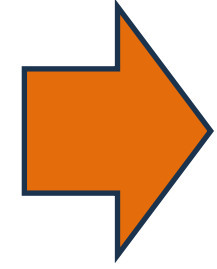
온실가스



기후변화



기후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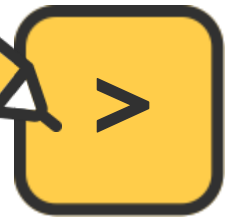


기후 정의

**온실가스 배출
-기온상승-**

산불, 태풍, 가뭄

**기후 변화의
함축하는 정의 및
공정성의 문제**



기후위기란 무엇일까요?

*** 인간활동으로 인해 자연적인 변화
이상으로 기후가 변화하는 것**



***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이상기후 현상들이
나타나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





기후 정의란 무엇일까요?

국제구조위원회는 기후 변화가 전 세계 지역사회에 불공평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후 정의는 기후 변화로 인한 부담이 기후 변화에 가장 적게 기여한 지역사회에서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국제구조위원회 기후 정의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날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의 즉각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가 온난화 세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 전략과 적응을 촉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기후의 변화 - 만들어 낸 사람은 누구 까요?

한국은 지난해 13번째로 많은 6억7천만m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CNN은 중국, 미국, 인도, 유럽연합 등 상위 20개국이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의 83%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기후 변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기후의 변화 최대 피해를 입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파키스탄: 물에 잠긴 나라

파키스탄은 기후 문제로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파키스탄은 오늘날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의 예입니다. 홍수로 국토의 1/3-영국과 같은 크기의 면적-이 물에 잠겼습니다.

파키스탄의 홍수로 텍사스 인구보다 많은 3,300만 명의 삶이 파괴되었습니다. 홍수로 1,400명 이상이 사망하고, 360만 에이커의 농작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국가의 몬순 시즌 동안 더 많은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증가하는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이 거의 없습니다. 세계 인구의 2.68%가 파키스탄을 고향이라고 부르지만, 파키스탄은 전 세계 CO2 배출량의 0.6%만 책임지고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 - 가장 피해를 입는 나라는 어디 일까요?

전체적으로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및 케냐는 세계 인구의 2.35%가 거주하지만 총 전 세계 CO2 배출량의 0.1%만 배출합니다(모든 배출 수준은 지구 대기 연구를 위한 배출 데이터베이스(EDGAR)에서 가져옴). 긴급한 기후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동아프리카에 사는 수백만 가족은 기후로 인한 재앙에 계속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 기온상승 – 현장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건설현장의 상황





현장 노동자의 죽음 – 노동권 침해

그에 앞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6월19일, 경기 하남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29살 노동자도 숨졌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이라고 전해졌지만, 사람들은 땀별 아래 뜨겁게 달궜진 주차장에서 매일 수십km를 걸어 다니며 일한 노동자의 죽음에 그날의 날씨가 영향을 줬을 거라 짐작한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심심치 않게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소식이 들려왔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 사회 약자의 모습

매년 15~20명가량이 열실신이나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으로 숨져 산재로 인정받는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건설노동자 같은 옥외 노동자 또는 청소나 경비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인데, 신규 입사자들이 많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5~17%가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50대 이상 고령자가 많다. 인간의 신체는 외부의 온도에 적응하기 위해 순화(acclimatization)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통상 12~14일가량이 필요하다. 신규 입사자라면 새로운 업무는 물론, 작업환경에도 적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셈이다.



기온위기는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고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2000년대 초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젊은 남성들이 만성신장질환으로 잇따라 숨지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처음에는 농약이나 중금속이 원인이 아닌가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땀약벌에서 4~5시간을 쉬지 않고 일하면서 탈수와 신장 기능의 이상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결론지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설탕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전세계 전문가들이 잠시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농장주들은 꿈쩍하지 않았다. 신장질환을 진단받으면 해고당하고, 의료에 대한 접근성도 낮은 상황에서 민간요법이 유행하면서 이 문제는 흐지부지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조사·심의하여 정부와 기업 등에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출처 : 202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인권사이다 3편: 기후위기가 인권에 미치는 나비효과>



사라지는 아동의 권리



기후위기- 환경오염은 어디어디 있을까요?





환경오염을 시키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출처 :세이브칠드런 아동권리와 기후 위기>



> 환경오염을 시키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기온변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탄소중립 2050



기후위기는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직·간접적으로 인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 증진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적 의무로 인식하고 기후위기를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2. 우리나라 기후 변화의 양상과 사회적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후 위기 취약계층을 유형화하고, 기후 변화가 취약계층의 고용, 노동조건, 주거, 건강, 위생 등에 미치는 위협요소를 분석하여 취약계층 보호 및 적응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3.국제기준을 고려하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설정하고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도 서정하여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감축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매주 금요일마다 스웨덴 의회 앞에 앉아 기후변화에
무관심한 정치권을 향해 1인 결석 시위 진행.
이 시위는 173개국의 등교거부 운동으로 확산.
위 행동은 전세계 곳곳의 환경운동에 영향을 주었고,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나가고 있음.



국내 청소년 자치 활동



청소년기후행동

(국내 청소년 자치활동)

스스로 자신들을 멸종 위기종이라 말하며 기후위기가 계속된다면 북극곰이 아닌 자신들이 멸종될 것이라고 이야기함. 기후위기에 대해 관심이 없는 우리나라 정부가 법을 어기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 및 기후위기 캠페인 활동을 진행함. 2020년 '결석시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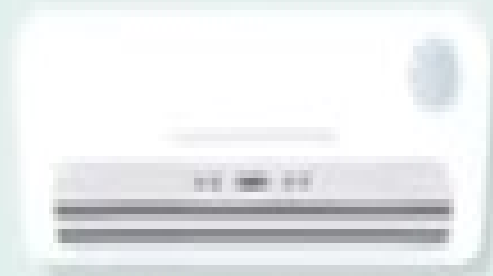


>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아봐요

우리는 어떤 것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습관을 점검해 볼까요?



물을 틀어놓고 양치해요.



에어컨을 적정온도인 26°C보다 낮게 틀어요.



콘센트에 코드를 여러개 꽂아요.



기후위기 : 내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일상생활 속

생활 폐기물 줄이는 방법

- ✓ 올바른 재활용은 필수!
- ✓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사용 STOP
- ✓ 일회용 봉투 대신 장바구니 or 에코백으로!
- ✓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하기!
- ✓ 재활용 가능 표시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실천방법

